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마 포 구 의 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제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공무원 1만3,032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마포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12명, 8급 공무원 16명, 9급 공무원 41명 등 총 69명의 공무원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